해방 후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국어교육의 위상

민병욱 / 부 산 대 학 교 국 어 교 육 과
박형준 /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目 次

Ⅰ. 들머리
Ⅱ. 해방 후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국어 교육의 전개 양상
1. 해방 후 부산지역 국어교육의 전개 양상
2.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국어교육의 전개 양상
Ⅲ. 해방 후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국어 교육의 역할과 위상
Ⅳ. 마무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

Ⅰ. 들머리

이 논문은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기까지 부산지역 국어교육의 전개 양상을 살피고, 그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다양한 교과에서 지역교육의 중요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실제 학교교육의 현장에서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제정 및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지역교육의 문제는 여전히 담론의 바깥에서 표류하고 있다.

물론 지역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활성화되고, 지역민의 지역 이해와 지역 사랑을 촉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의 중심 인물, 사건, 생활양식, 문화 등에서 지역의 의미를 찾는 지역화 방법은

자칫 자본주의 문화산업의 병폐를 고스란히 답습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역의 문학, 문화, 역사 등을 문화콘텐츠로 개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부산광역시는<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와<부산발전연구원>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부산지역의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시사편찬위원회>는 『항도부산』이라는 학술지 발간을 통해 부산지역의 역사를 공시적·통시적 차원에서 기술하고 이를 종합하는 기획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연구 분야가 정치, 행정, 산업, 사회,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각 시기별 학술 담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1)]

국가의 기반을 일구는 것은 지역 사회이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구심체는 학교"[2)], 즉 지역의 교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학교와 지역 교육의 역사를 되돌아 보는 일에는 무관심했다. 부산지역 교육사에 대한 기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3)] 그러나

---

1) 시사편찬위원회는 2008년에 '1950년대 부산'을, 2009년에 '1960년대 부산'의 사회상을 기획 논문의 주제로 공모하였다. 또한 학술지『항도부산』제16호(2000, 7)의 기획 주제로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기까지 부산지역의 사회상을 다룬 바 있다. 그러나 연구 주제가 행정, 공업구조, 사회경제, 음악계 등에 국한되어 있어, 교육사적 시각에서 이를 조명하고 해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2)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2005,『한국교육의 지역화 연구』서울, 교육과학사, 19쪽

3) 1920년대의 야학운동과 학교교육에 대한 일부 연구 성과가 있다. 최윤경, 1992,「1920년대 경남지방의 야학활동」,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현, 1993,「1920년대 부산지역의 학교교육」,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그리고 부산지역은 아니지만, 지역교육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경기·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화성교육청 편. 2008,『화성교육사』경기도화성교육청. ; 박영호, 2003,『강원교육사』, 서울, 하우. 이시웅 · 피정만, 2000,『지방교육사』한국교육사학회. 전라남도교육청, 2005,『전남교육육십년사』다지리.

선행 연구는 대부분 부산지역 교육사의 흐름을 개괄적 수준에서 기술한 것이며, 그 내용도 교육행정, 교육재정, 학교현황, 교원실태 등의 자료 제시에 그치고 있다. 부산지역의 교육사를 재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자료 자체에 함몰되어 자료의 역사적 의미를 분석하지 못한 것은 문제적인 것이다.

부산지역의 교육사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의 영역과 더불어 지역사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연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사 연구의 관심을 받지 못했거나 배제되어 왔다.[4] 이와 같은 현상은 국어교육과 같은 개별 교과 영역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것은 지역교육사 연구의 어려움 자체에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연구의 중요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데도 원인이 있다.“지역문화의 참된 가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가치와 방법을 담고 있는 지역화 교육”[5]이 국어교육을 통해 가능하다는 논의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부산지역 국어교육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반성, 그 역할과 위상 점검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방 직후, 부산지역의 초·중등교육 및 성인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것은 문맹 퇴치와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이었다. 부산의 각급 학교와 문화 단체는 우리말과 글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

4)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편, 1987,『부산교육사』부산, 반도인쇄사 ;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01,『부산교육 100년의 회고와 전망 : 한국교육사상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한국교육사상연구회. 그러나 한국교육사상연구회의 학술대회에서도 부산의 유치원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사회교육, 특수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을 뿐, 국어교육과 같은 개별 교과 영역은 다루지 않았다.

5) 안동준, 2007,「지역 문학 교육의 실천 방안에 대한 연구」『배달말』제41집, 배달말학회, 392쪽.

시키기 위해 제도 안쪽과 바깥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전쟁이 시작되어 교육 환경이 열악하던 시기에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한국교육사의 공백을 메우고 있었던 곳이 부산이다.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기까지는 부산지역 교육계의 위상이 매우 높았던 시기이다. 따라서 부산지역 국어교육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는 작업은 해방 직후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기까지 부산지역 국어교육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고 그 역할과 위상을 밝힘으로써, 부산지역사의 안과 밖을 더욱 풍요롭게 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부산지역 신문 매체에 나타난 교육 관련 기사를 통해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기까지 부산지역의 교육 현상을 조망해 볼 것이며, 이를 국어교육 현상과 상호 관련하여 해석하고 재구성할 것이다. 또한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기까지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였던 교과서와 교육과정 일람표를 조사함으로써, 부산지역 국어교육의 전개 양상과 위상을 실증적 차원에서 재구해볼 것이다.

이 연구는 부산지역이라는 개별 지역사, 혹은 지역 교육사의 내용을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사, 한국교육사, 국어교육사 등의 내용을 풍요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부산지역 교육사를 재구성함으로써, 기존의 부산지역사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부산지역 국어교육의 역사적 실체와 위상을 점검함으로써, 한국교육사에서 부산지역의 국어교육제도가 차지하는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현대 부산지역 교육정책 및 교육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Ⅱ. 해방 후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국어교육의 전개 양상

1. 해방 후 부산지역 국어교육의 전개 양상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다. 해방 직후, 부산을 비롯한 각 지역의 교육계에 부여된 주요 과제는 국어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의해 말살되었던 국어를 되찾는 것이야 말로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부산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마찬가지였는데, 왜냐하면 전국적으로"초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이미 일본어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우리 문법과 맞춤법 등을 새로 가르쳐야 하는 게 가장 큰 과제"[6]였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의 국문 보급 현황에 대한 통계를 보면, 해방 당시 12세 이상 인구에 대한 문맹자 비율은 78%에 육박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던 1948년 전후에도 41%의 문맹률을 보이고 있다.[7]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학교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해방 직후 문맹퇴치운동 및 국문보급운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그것은 첫째, 성인교육 혹은 사회교육 차원의 국문 보급 운동과 둘째, 학교교육의 차원에서 실시하는 국어교육이었다.

먼저, 성인교육의 차원에서 실시된 국문보급운동 양상을 살펴보자. 한글 깨치기는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적 수단으로서, 선거와 같은 공공 영역의 참여 수단으로서 언어 사용 주체에게 사회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적 활동을 하는

6) 광주고보·서중·일고동창장학회 편, 2004,『광주고보·서중·일고 팔십년사』광주, 광주편집실, 436쪽.
7) 대한장학사회, 1958,『교육전시회 화보』대한장학사회, 33쪽.

사람이라면 한글 해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즉, 성인교육 혹은 사회교육의 차원에서 국문보급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성 있었다. 이에 문교부는 보통선거에 대비하여'한글개학촉진운동'을 전개하여"18세 이상의 모든 문맹 남녀 전부를 일정한 기간안에 한글을 해득시켜 앞으로 닥쳐올 보선에 이바지하"[8]도록 하였는데, 실제로 이러한 성과는 각 지역별로 나타났다. 부산지역의 경우, 국문보급운동은 학교, 공장 할 것 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성과도 상당하였다.

> 문교부장 兪億兼은 지난번 미곡수집유세차로 경남·북도에 출장하였던 차에 동 지방의 학교도 시찰하고 돌아왔는데 동지의 교육현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난번 미곡수집의 유세을 나갔던 길에 시간을 이용하여 국립부산대학 東萊中學 경남여중 대구서 열린 교육 연구회 朝鮮絹織회사 직속의 公民校와 그외에 국민학교 성인교육기관들도 시찰하였다. 학교당국자와 행정관청과 일반 사회는 교육에 대해서 비상한 열의를 가지고 있으며 곳곳이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동래중학은 과학교육에 특히 앞장서고 있으며 權교장을 중심으로 교내가 매우 화목하게 지내었다. 국립학교도 방문해 보았는데 모두들 잘해 나가고 있었다. 부산의 조선견직회사직속공민학교에서는 1백6십7명의 여자직공들에게 매일 두시간씩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강사는 회사직원들도 되어 있다. 이 공장의 여자직공들로서는 이제는 국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성인교육에 대한 열성은 도시와 농촌을 물론하고 대단하여 부산시내의 200공장은 지난 5일부터 전반적으로 실시한다 하며 어떤 공장은 이 때문에 특히 십5만원의 경비를 계상하고 있었다. 성인교육비로서는 관청으로부터 조금씩 보조받고 있는 외에는 전부를 지방에서 담당하고 있다.[9] (밑줄 : 인용자)

8)「보통선거에 대비하여 한글개학촉진운동 전개」《동아일보》1947년 4월 26일.
9)「문교부장 유억겸, 경남북 교육현황 언급」《조선일보》1946년 12월 11일.

"문교부 발표에 의하면 경상남도에서는 성인교육을 실시한 연후 독서 능력을 습득한 남녀가 1,169,862명에 달하였다 한다. 즉 도내의 문맹인은 82퍼센트이던 것이 1년 후인 오늘에는 23퍼센트로 저하되었"[10]으며,"해방 전 38이남 인구에 비추어 70%라는 놀라운 숫자에 오르던 문맹자가 작년 1년동안에 42%로 줄어"[11]들었다. 또한"부산의 조선견직회사직속공민학교에서는 1백6십7명의 여자직공들에게 매일 두 시간씩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강사는 회사직원들로 되어 있다. 이 공장의 여자직공들로서는 이제는 국어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다.[12] 그리고 체신국에서는 부산지역 전화 교환수에게 교환용 표준어강습 실시하기도 하였다.

> 해방 후 전화교환 용어의 불통일로 말미암아 교환양들의 고심이 적지 않았었는데 체신국에서는 그간 국문으로 된 교환용 표준어를 제정하여 서울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지가 오래나 지방에는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내에서 우수한 교환양 4명(申榮順-光化門局, 尹炳玉 金永熙-中央電話局, 成三順-龍山局)을 대구, 부산에 파견하여 두 곳의 교환양을 15일간 강습시키고 11일 돌아왔다. 일행은 지방의 전화상황과 강습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구는 해방전에도 우리 동포교환수가 반수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던 관계로 잘들 하고 있었으며 이번의 교습성적도 매우 좋았습니다. 시외교환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데가 부산입니다. 부산은 원체 사투리가 심한 데다가 과거에 전부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표준어를 가르치는데 여간 곤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달만 지나면 교환용어는 완전히 통일

10)「경남 성인교육이 문맹퇴치에 큰 성과」《동아일보》1947년 5월 1일.
11)「문교부 성인교육국 문맹퇴치 성과 발표」《동아일보》, 1947년 8월 3일.
12) 성인교육에 대한 부산지역의 시민들의 열기는 대단하였다. 실제로 제2차 문맹퇴치교육 실시되던 1955년에는 성인교육을 미끼로 하여 여성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까지 있었다. 「성인교육을 미끼로 농촌여자를 凌辱(釜山)」《동아일보》1955년 8월 25일.

될 줄로 믿습니다."[13] (밑줄 : 인용자)

위의 신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산지역은 일제의 식민주의 교육 정책과 수탈 정책으로 인해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었다. 체신국에서 부산지역 전화 교환수의 언어 오염과 표준어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글강습회를 실시한 것은 부산지역의 국문보급운동 및 국어교육운동이 학교, 공장 할 것 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부산지역의 중등학교에서도 야간에는 학교를 개방하여 성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부내 중등학교 교장들은 수일전 동래중학교에서 교장회의를 열고 당면한 교육문제를 토의 결정하였는데 그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생도의 질실 강건의 기풍을 함양하기 위하여 근래의 폐풍인 장발을 금지하고 복장도 학생답게 개정통일하여 이른 바 하이칼라풍을 일소할 것. 2) 중등학교 운동연맹을 결성하고 연맹의 후원없는 부분적 행동을 금지함. 3) 운동종목 중에 조선고유의 씨름 그네를 첨가한다. 4) 성인교육에 각 중학교 야간을 이용하는데 사정이 허락하는 학교는 즉시 실시할 것.[14] (밑줄 : 인용자)

부산사회교육협회에서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코자 하면서도 경제적 타격으로 인하여 공장 방면에서 눈물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향학열에 불타는 천진난만한 근로청소년들을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가르쳐주기 위하여 현안의 실천을 보게 되었다는데 그 내용인즉 경남상업학교 외 18개교에 3년제 야간중학을 설치하여 매년도에 3천여 명의 신입생을 수용하리라 하며 월사금 4백 원을 제

13) 「지방교환수에게 교환용 표준어강습 실시」 《조선일보》 1946년 3월 14일.
14) 「부산부내 중등학교 교장회의, 당면 교육문제 토의」 《서울신문》 1946년 9월 22일.

> 외하고는 경비 일체를 사회교육협회가 부담하리라는 바, 경제적으로 절박한 구렁에 빠져 있는 근로청소년들의 배움에 커다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일반의 적극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금년도는 9월 초순경 일반 중등학교와 같이 개학하리라 한다.[15] (밑줄 : 인용자)

이처럼 성인교육의 차원에서 실시된 한글(국어)강습회는 대대적인 규모로 실시되었다.[16] 그러나 문맹을 벗어나기 위한 부산지역민의 요구를 직장, 혹은 사회교육 차원의 한글강습회만으로는 모두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성인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3개 초등학교에 부설 공민학교를 설치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직장을 중심—성인교육 차원에서—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국문보급운동과 국어교육운동이 교육제도로 본격화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부산시에서는 今般 성인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내 33국민교에다 부설 공민학교 설치를 계획중에 있다는데 이는 주로 입학연령을 넘은 아동으로부터 약 20까지의 소년에게 기능에 응하여 2년 내지 3년 간에 국민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갖게 할 수 있는 有爲의 인재를 만들어 내게 함이 목적이라는데 현재 市사회교육협회로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每국민학교 구내에 평균 2개 학급의 부설 공민교생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바,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추산 매월 40만 원이

15) 「부산사회교육협회, 근로자 위한 야간중학 신설 예정」 《경향신문》 1948년 9월 8일.

16) 《동아일보》 소재의 성인교육과 관련된 기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성인을 재교육 중앙성인계몽협회 결성」 《동아일보》 1946년 3월 30일 ; 「국어강습회 개최일연기」 《동아일보》 1947년 4월 30일 ; 「국민개학에 총진군 각동에 한글강습회」 《동아일보》 1947년 5월 28일 ; 「한글講習會」 《동아일보》 1948년 4월 29일 ; 「다함께 배우자 성인교육추진」 《동아일보》 1948년 11월 12일 ; 「야간한글강습회」 《동아일보》 1949년 5월 3일 ; 「한글강습회계획」 《동아일보》 1949년 4월 25일 ; 「한글강습회」 《동아일보》 1949년 7월 29일 ; 「동기 한글강습회」 《동아일보》 1949년 12월 26일.

나 된다는데 이는 당연코 사회교육협회가 부담할 성질이 아닌 바 현재 명목만을 가지고 개교 중에 있는 187공민교에 대하여도 경제적으로 何等의 원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교육회의 실정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것인지 매우 주목되며, 한편으로는 학교와 구내 동회가 협의하여 자급적으로 경비 염출을 한다는 말도 있어 어떠한 결실을 갖게 될까 자못 의문시되고 있다.[17] (밑줄 : 인용자)

1951년 부산지역의 교육 통계를 보면, 부설 공민학교의 학생수는 4,849명이며, 사설공민학교의 학생수는 1,400명, 사설 고등공민학교의 학생수는 890명, 사설 학술강습회의 학생수는 2,280명으로 정리되어 있다.[18]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성인교육 차원에서 실시되던 문맹퇴치운동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국어교육의 전개양상을 살펴보자. 앞에서 살펴본 한글강습회는 성인교육의 차원에서만 실시된 것이 아니라, 초·중등학교 교원 재교육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었다. 해방 초기에는 한글강습회를 통해 초·중등 교원 재교육의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급 학교의 국어교육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방이 되자마자 조선어학회는 중등학교 국어 담당 교원을 긴급히 양성해야 한다는 자각 아래 학회 내에 사범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한글강습회에 들어갔다.[19]

17) 「부산시, 각 국민학교에 부설 공민학교를 설치 예정」 《부산일보》 1949년 9월 17일.

18) 부산시교육위원회, 1959, 『부산교육지』 부산시교육위원회, 133쪽.

19) 1945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경상남도가 주최하여, 부산항고등여학교(경남여자고등학교)에서 개최된 한글강습회에는 초·중등 교원들이 다수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1945년 12월 22일부터 1946년 1월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초등 교원 재교육과 1946년 1월 9일부터 1월 18일까지 개최된 중등 교원 재교

해방 직후 개교한 부산지역의 각급 중·고등학교에선 국어 과목을 교육과정 편성시 필수 과목으로 우선 편성하였다. 예를 들어, 동래고등학교는 1945년 10월 1일에 개교하여 주당 32～34시간을 가르쳤는데, 이 중에서 국어 과목의 시간이 주당 7시간으로 가장 많았다.[20]

군정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필수과목	국어	5	5	5	필수과목	국어	3	3	3
	사회생활	5	5	5		사회생활	5	6	5
	수학	5	5	0		수학	5	0	0
	일반과학	5	5	5		과학	5	5	0
	체육보건	5	5	5		체육보건	3～5	3～5	3～5
	실과	2	2	2		외국어	0～3	0～3	0～3
	음악	2	2	2		계	21～26	16～21	11～16
	계	29	29	24	선택과목	국어	2	2	2
선택과목	수학	0	0	5		사회생활	(5)	(5)	(5)
	외국어	5	5	5		수학	0	5	5
	음악	1～2	1～2	1～2		과학	0	0	5
	미술	1～2	1～2	1～2		외국어	5	5	5
	수공	1～2	1～2	1～2		음악	1～3	1～3	1～3
	실업	0～10	0～10	0～15		미술	1～3	1～3	1～3
	특수과목 국어	1	1	1		심리	0	0	5
	특수과목 학과	1	1	1		실업	5～18	5～20	5～25
합계		39	39	39	합계		39	39	39

표 1 중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비교

이 당시 중등학교 학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이 분리되기 이전의 학제인데,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던 교과목 편성 지침, 즉 공식적 교육과정과 실제적 교육과정이 정확히

육에 수강한 교사들이 부산과 경상남도 교원들을 모아 전달 강습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1987, 『앞의 책』 170쪽 참조.

20) 동래고등학교 동창회 편, 2002,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동래고등학교 동창회, 257쪽.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21] 해방 이후 부산지역 중등학교의 교과목 일람표를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확인할 수 있다. 1947년부터 1949년 사이 경남공립여학교(경남여자고등학교)의 교과목 일람표를 중학교 시간 배당표와 상호 대비해 보면, 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학교와 공업학교의 교과목 일람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2] 즉, 부산지역의 중등학교에서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어 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설 부족[23] , 교원 부족[24], 교직원의 생활 빈곤 문제[25], 미인가 학교의 수업료 착취, 중등학교 입학금 문제[26], 기부금 문제[27], 교과서 개발 및 보급[28]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교실 부족과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무교육 실시와 함께 심각한 처지에 놓여있는 교실 부족은 부내만

21) 대한장학사회, 1958,『앞의 책』5-6쪽 참조.
22)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1987,『앞의 책』263-269쪽 참조.
23)「부산시, 입학일 앞두고 교실 부족 사태 」《부산신문》1948년 8월 27일.
24)「문교부, 교원부족 보충을 위해 8개 사범학교 신설 발표」《조선일보》1946년 11월 9일.
25)「부산부 국민학교 교직원, 생활빈곤으로 교육에 지장」《부산일보》1949년 7월 3일. ;「부산부 학무국, 재정악화로 국민학교 교원에 두 달째 월급 미지급」《민주중보》1949년 7월 9일.
26)「부산·경상남도지역 학부형들 거액의 중등학교 입학금으로 고통」《민주중보》1949년 7월 14일.
27)「부산부 국민학교의 부담금 징수 실태」《부산일보》1949년 8월 24일.
28)「감찰위원회, 문교부의 교과서 용지 부정처분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자유신문》1949년 4월 15일.

하여도 최저 70 교실이 필요하여 이 자금조달로 학교측과 교위측의 알력은 격렬화하여, 박두한 입학날을 앞두고 갑론을박으로 회의만 거듭하고 있다. (…중략…) 교실 신축에는 하세월에 착수할 것 아득한 일이며, 무기력한 학무과의 학무행정으로 동광 동신 양학교를 비롯한 시내 32학교 중에 수 개교를 제외한 각 학교는 3천 원 이상의 부당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어 가난한 학부형을 울리고 있다. 이 문제로 수차에 걸쳐 부윤의 언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동풍격으로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더라도 학무당국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무질서한 교육방침이 露顯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교과서의 개발과 공급이었다. 해방 직후에는 국어교과서의 체계적인 검인정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뿐 아니라, 심각한 용지 기근으로 인하여"각 학교 교육에 막대한 불편을 주어 소학 중학 전문대학 등의 교과서를 못만들고 또 학용지 구입난으로 거의 수업 불가능 상태"[29] 였으며, 지방 교육단체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였다.

安문교장관은 작 7일 정례기자단 회견석상에서 당면한 문교행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 문교부 용지문제 : 곧 해결될 것이다. 이 분실문제는 현 정부에서는 책임이 없고 과정 당시의 사건인 만큼 국제적 문제도 되어 곧 해결해 줄 것을 확약 받고 또 그 책임자들이 불원 문교부에 분실된 수량을 들여 놓게 되었다. (…하략…)[30]

각 지방 교과서 판매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지방의 필요량을 구입하여 각 학교에 판매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없으므로 각 학교에서 선금을 받은 후 그 돈으로 곧 교과서를 구입치 않고 다른 방면으로 유용

29) 「심각한 용지난으로 인한 폐단」《조선일보》 1946년 12월 10일.
30) 「安浩相 문교부장관, 문교부 용지문제 등 문교행정에 관하여 기자회견」《평화일보》 1949년 4월 8일.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문교당국에서는 조사원을 각지에 파견하여 엄중 단속할 것이라는 바, 금년에는 교과서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폐단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31]

해방 직후에는 교과서와 일반 단행본의 구별이 엄격하지 않았으며, 한글로 된 책만 나오면 학교에서 교과서 또는 부교재로 사용하던 때였다. 한글로 된 국문판 책자는 일제 때 언문철자법으로 된 구교재에서 선별적으로 재활용하거나, 그저 작품이나 문집으로 발간된 책자를 가지고 국어 시간에 읽어 내는 정도였다. 새로 편찬되어 나오는 임시용 교재들도 모두 마분지에다 찍어 냈으며, 그나마도 양적으로 반수도 미치지 못하므로 촌간에서는 베껴 쓰는 필사본을 사용해야 했다.[32]

1946년 이후 국정 국어교과서는 조선어학회가 편찬한 『한글 첫 걸음』, 『초등국어교본』(상·중·하), 『중등국어교본』(상·중·하), 그 밖에 편수국에서 펴낸 『초등국어』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보급되지는 못한 상태였다.[33] 이러한 현상은 당시 출판 상황을 고려할 때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국정 교과서의 보급 문제는 지방의 경우 더욱 심각하였으며, 국정 교과서가 교수요목의 내용 체계를 포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재의 선택이 교사의 재량에 맡겨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교과서를 직접 개발하여 보급하고 또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31) 「상인들의 자금난으로 학교 교과서가 학생에게 제때에 미지급」 《경향신문》 1949년 7월 11일.
32) 박붕배, 1997, 『국어교육전사(상)』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33) 박붕배, 1997, 『앞의 책』 550쪽.

> 교과서는 아직 편찬되지 않았고 프린트물로 대용하였고 국어, 국사, 공민 등을 제외한 교과목은 담당 교사가 모두 일본어를 번역해서 교재로 사용하였다. 46년 조선어학회에서 편찬한 「한글 첫 걸음」, 46년 2월에는 「중등국어교본」이 나왔고 또 진단학회에서 편찬한 「국사」가 나왔으며, 「지리」 교과서도 46년에 출판되어 교과서로 사용하였다. (…중략…) 여러 교과 가운데 학생들의 관심을 많이 끈 것은 국어, 국사 등의 국학(國學)이었는데 해방된 그 시기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었다. 국어는 박차갑 교사가 「한글 첫 걸음」, 「시조」 등을 판서 위주로 교수하였고, 김유성 교사는 주로 국문법을 담당하였는데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교재로 사용하였다. 국사는 정중환(전 동아대 교수 역임)교사가 판서 위주로 수업을 하였다. 당시의 학생들은 처음으로 단군의 건국 신화를 알게 되었으며 민족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34]

이처럼 해방 직후, 부산지역의 한 중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프린트물'로 교과서를 대용하다가 조선어학회에서 편찬한 교과서를 『한글 첫 걸음』과 『중등국어교본』을 사용하였다. 1948년 8월 이후 교과서 발행 업무가 정부 책임 아래 들어온 후에도 여전히 인적·재정의 부족으로 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각종 업무가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모든 학생들에게 교과서가 충분히 공급되지도 못했다.[35]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해방 직후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교과서가 교육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닌 것인가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매우 보편적인 것이었는데, 부산지역에서도 교사가 직접 편찬한 교과서 및 부교재를 발견할 수 있다.[36]

---

34) 동래고등학교 동창회, 2002, 『앞의 책』 258쪽.

35) 곽병선 외, 2004, 「교과서 발행제의 다양화에 따른 자유발행제 도입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2쪽.

36) 교사들이 교과서를 직접 제작하는 것은 이 시기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부산뿐만 아니라, 대전에서도 국어교사가 직접 제작한 교과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전공업학교 편, 『중등국어교재』이다. 판권

예를 들어, 『新古國文選』, 『수학의 힘』, 『중등 음악교전』, 『자연과학 생물』, 『서양사』 등이 그것이다.[37] 이 중에서 필자가 관심을 가진 것은 유인본 국어 교과서 『신고국문선』이다. 해방 이후의 유인본 국어 교과서 『신고국문선』은 향파 이주홍이 편찬하고, "부산부(부산시) 동광동 1가 13번지 청운프린트사"에서 인쇄한 것으로 메모되어 있다. 당시에 향파 이주홍이 동래고등학교 재직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가 고전, 소설, 시, 동시, 만화, 글씨 등에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교과서가 어떠한 목적과 내용으로 만들어졌는가 하

지는 없다. 그러나 실업계 중학교(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에서 '중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 교과서가 학제(중학교-고등학교)가 분리되기 전의 시기에 편찬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때의 "중등"은 고급중학 즉 고등학교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국어교과서는 '중등국어교재'와 '중등말본교재'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시, 수필, 전기문 등을 수록하고 있는데, 저자는 밝히지 않았다. 후자는 기존의 문법서를 간략히 요약해 놓았는데, 주로 '말소리' 위주로 정리되어 있다. 국정 교과서의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국정 교과서만으로는 실질적인 국어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므로, 기존에 출판된 단행본(시가소설 작품집, 문법서 등)을 활용하거나, 교사가 직접 제작한 교과서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박형준, 2006,「해방공간 문학교육의 담론 연구」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7) 동래고등학교는 1945년 10월 9일 해방 후 한글날 기념식과 행진을 거행하는 등 한글보급운동 및 한글의 위상 강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참고로 필자는 이 연구를 위해 부산지역의 전통 있는 고등학교 중 몇 곳을 답사하였다. 특히, 동래고등학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사적으로 가치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었다. 동래고등학교의 역사관 고서고에는 최현배의 『한글의 투쟁』(정음사, 1954), 『우리말 존중의 뜻』(정음사, 1953), 조선어학회에서 발간한 『조선어 표준 발음』(조선어학회, 1945)와 당시 재직한 교사가 직접 제작한 교과서 등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해 부산지역 중등학교의 민족정신과 역사의식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자료 중에서 이주홍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신고국문선』, 서인수가 편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서양사』, 그리고 『수학의 힘』, 『중등 음악교전』, 『자연과학 생물』 등은 모두 동래고등학교 역사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이다. 이 자리를 빌어 소중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주신 동래고등학교와 동래고등학교 역사관 안대영 관장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주홍의 『신고국문선』은 김천택의 '~잘 가로나 닫지말며'를 비롯한 시조 10편,'심청전','춘향전','가시리','고산구곡','소상팔경','춘면곡' 등의 고전 텍스트를 수록하고 있으며, 이하윤의'고향', 김기림의'우리들의 팔월로'등의 현대시 텍스트, 그리고 이태준의'과실', 문일평의'예술의 성직', 최현배의'민족 문화의 창조'등과 같은 현대산문 텍스트를 수록하고 있다.[38] 특히, 고전 텍스트를 많이 선정한 것은 해방 이후 민족적 정체성을 자각하게 하고, 우리의 전통 문화를 통해 '우리 것'을 학습하고자 한 의도였을 것이다. 이를테면, 최현배의'민족 문화의 창조'와 같은 글은 이와 같은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 문화 창조란 인류 공통의 목적인 동시에 또한 각 민족 개개의 목적이 된다. 우리 조선 민족의 당면한 과제도 여기에 있다. 흥망 많은 과거의 역사를 비춰여 보더라도 동일 민족은 동일 민족 안에서 이민족은 이민족 개개히 각기 그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중략…) 새로운 우리 문화 창조의 벽두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참된 문화를 창조하야 우리 민족의 영원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넓이 세계 문화에 공천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있다. - 『신고국문선』, 32쪽.

최현배의 이 글은 잘 알려진 글이다. 하지만 이 글을 국어교육의 텍스트로 선정한 것은 국어의 통사구조에 대한 교육적 의도 때문이 아니다. 이 글은 민족 문화에 대한 정신과 가치를 회

38) 이 논문은 해방 후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국어교육의 전개 양상과 위상을 고찰하는 글이므로 『신고국문선』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 논의로 미루어 두기로 한다.

복함으로써, 민족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자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즉, 많은 고전 텍스트 사이에 선언적 성격의 글을 제시함으로써 고전 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한 편찬 전략인 셈이다. 고전은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 국어교육의 중심 제재이자, 문학교육의 중심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해방 후 부산지역 국어교육 현상 역시 고전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과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해방 후 부산지역 각 학교의 국어교육은 시설 부족, 용지난, 교과서 공급 등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교원 재양성, 교과서 개발 및 편찬 등의 자생적인 노력을 통해 이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특히, 정부 수립을 전후해서는 학교 현장 바깥에서도 국어국문, 국어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예를 들어, 민족문화협회 총본부와 조선어학회 도지부 등이 부산지역에 설치되고, 국어교육 및 한글보급, 한글문화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 문학을 통하여 조국의 광명과 이상을 지키려는 문학인의 모임으로 朝鮮靑年文學家協會가 결성되어 지금까지 활발한 운동을 계속하여 오던 바 이에 호응하여 22일 하오 1시 부산 東大新町 光新國民學校에서 조선청년문학가협회 慶南支部를 결성키로 되었다. 당일에는 서울중앙 간부 4·5人도 참석한다 하며 동회의 강령과 준비위원은 다음과 같다 한다. 1) 자주독립에 문화적 헌신을 기함. 1) 민족문학의 세계사적 사명의 완수를 기함. 1) 일체의 공식적 예속적 경향을 배격하고 진정한 문학정신을 옹호함. 1) 지방문화의 육성과 향토문학의 건설을 기함. 준비위원 하기락 탁창덕 조주흠 럼주용 천세욱 오영수 外 諸氏.[39] (밑줄 : 인용자)

39) 「조선청년문학가협회 경남지부 결성예정(6.22)」 《동아일보》 1946년 6월 15일.

문화 발전을 방해하는 한문을 철폐하고 세계에 으뜸가는 한글을 전용하여 그들의 편리함을 3천만이 다같이 몸소 느끼게 되는 것은 문화 민족의 긍지와 아울러 민족문화 향상을 위하여 가장 緊切한 문제의 하나이다. 일제 40년 간의 한글에 대한 탄압으로 거의 질식 상태에 빠졌던 우리 글자 한글은 해방과 더불어 소생하여 급속도로 대중에게 퍼져나가 단시일에 전 민족의 전용을 보게 될 듯한 기세를 내보였으나 날이 갈수록 그 열이 식었음인지 해방후 5년째인 금일에 이르러도 교과서 같은 학구적 면을 제외한 대중의 일상생활에는 그다지 큰 침투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중략…) 이에 충실한 실천을 위한 주도적 촉진보급기관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요청되자 얼마 전에 조선어학회와 협력하는 한글전용촉진회의 탄생을 보게 된 바로 同會는 불원 각 도지부도 편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개시하리라 하며 동 회 사업과 역원은 다음과 같다. ◇ 사업 1. 국어교육 및 한글문화의 향상·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2. 한글의 보급 및 전용국어 정화에 관한 실천운동 3. 한글지도를 위한 강연회와 강습회의 개최 4. 기관지 및 출판물의 간행 5. 그밖에 본 회의 목적을 이룸에 필요한 일 ◇ 하기강습회 △ 곳 : 진주·마산·목포·부산·대구·청주·대전·군산·전주·광주·김포·경기도·서울 △ 날짜 : 8월 초순부터 하순까지 1주일 간(서울 2주일 간) ◇ 촉진회 역원 △ 위원장 : 최현배 △ 위원장 : 정인승·이희승 △ 총무부장 : 정태진 △ 사업부장 : 김진억 △ 조사연구부장 : 유열 △ 보급부장 : 옥치정 △ 감사 : 안창환 △ 위원 : 오천석·주기용 외 40명[40] (밑줄 : 인용자)

文盲者를 없애라. 국민은 눈뜬 장님으로부터 문화인으로 향상시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민족이 가진 주요과업의 하나일 것이다. 이는 민족발전의 근원이 되며 20세기에 호흡하는 인간으로서 남에 뒤떨어진 저하된 문화로선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今秋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성인 계몽은 해방 직후부터 시작된 일이다. 아직껏 만족할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학교는

40) 「한글전용촉진회, 한글전용보급을 위해 강연회·강습회를 개최할 예정」《자유신문》 1949년 7월 26일.

> 과연 의무교육을 실시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만한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東部 경남지방의 국민교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적으로 거의 충당되어 있으나 해방후의 현상으로 국민교에서도 역시 교원 질 저하와 함께 사범학교 출신자가 몇 명 되지 않았다. 교원의 질 저하도 문제는 문제려니와 그것보다도 더 큰 난관은 교실부족이었다. 예를 들자면 能村에는 2校에 17학급 11교실, 斗東도 2교에 17학급 12교실, 斗西 역시 2교에 22학급에 18교실, 鼎冠面에는 12학급에 3교실이란 한심한 상태이다. 날씨가 좋으면 야외 나무그늘에 칠판을 걸어놓고 국어랑 셈본이랑을 가르치며, 비가 오고 날씨가 궂으면 야외에서 수업받던 아동들은 다 오도가도 못하고 배우다가도 처마 밑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돌아가는 등 아동들은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끌려 움직이는 것밖에 아무런 일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말미암아 농촌 아동들은 대체 열등생에 속할 만큼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한 어느 학교는 교실 유리창이 하나도 없이 마치 폐허처럼 늘어져 있었다. (…중략…) 바라건대 농촌의 경제적인 근본문제의 급속한 해결과 아울러 교육 방면 또는 문화의 혜택을 입지 못한 농민들에게 획기적인 시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41] (밑줄 : 인용자)

"문맹자를 없애라"라는 구호적인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지역에서 문맹을 벗어나기 위한 지역민의 열망은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지역민의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해방 이후 부산지역에서는 국어교육의 외연을 확대하고, 학교, 공장, 기관 단체할 것 없이 한글보급운동과 국어교육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국어교육의 전개 양상

문교부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교육문제 전반에

41)「무의촌 실정 : 교육편」《부산일보》1949년 7월 31일.

걸친 체제 확립을 시도한다. 1948년 12월에 중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에 학도호국단을 조직하였으며, 1949년 7월 14일에는 국립과학관과 국사편찬위원회를 문교부 소속 기관으로 각각 발족하는가 하면, 1949년 12월에 제정·공시된 교육법 제1조를 통해서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등 교육체계의 확립을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1949년 12월 31일에 공포된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이념과 목적에 따라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교과서가 편찬될 예정이었다. 문교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교수요목 제정 심의위원회 규정'과'교과과정 연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전쟁으로 인해 문교부가 계획하고 있던 교육과정의 편성과 교과서 간행은 모두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문교부는 1951년 2월 16일자로'전시하 교육 특별조치 요강'을 제정·발표하여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노천이나 유휴건물을 이용하여 수업을 개시할 것을 시달한다. 부산지역에서도 시내'국민교장'임시긴급회의를 6월 30일 상오 10시부터 시회의실에서 열고'국민교'경영 전시체제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 부산시 학무과에서도 시내 국민교장 임시긴급회의를 30일 상오 10시부터 시회의실에서 열고 국민교 경영 전시체제 수립 及 실천에 관하여 지시, 협의하게 되었다. 1) 학교방위체제 수립 2) 학동 비상훈련 3) 학동 전시생활 轉導 4) 학동 戰時奉公隊 양성 5) 전시구호소 시설준비 6) 비상시 교과의 역동적 경영 7) 교직원 전시근무태세 확립. 특히 학동들로서 할 수 있는 출정병 환송 및 유가족 방문, 慰問文·慰問袋의 작성, 도로상 유희의 금지, 유언비어의 방지 등을 강조하리라 한다.[42]

42)「학동 비상태세, 국민교장 긴급회의」《민주신보》1950년 6월 29일.

“교과를 역동적으로 경영”한다는 전시체제 실천 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교과목을 탄력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부산지역의 각급 학교에서는 1950년 7월 8일부터 휴교를 실시하였는데, 6학년 학생에 대해서만 “교회를 비롯한 적당한 건물장소를 이용하여 될 수 있는 한 계속 수업토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도 임시 조치로 그치고, 1950년 7월 13일부터 “분산 내지 이동 교수를 받고 있던 국민교 6학년생도 같이 포함”[43]하여 하기방학을 당겨서 실시하게 된다.

> 이번에 부산시 학무과에서는 시내 각 국민교에 대하여 8일 이후부터 당분간 임시 휴교케 하는 한편 12개교를 대표하는 교직원을 하여금 매일 同課 내에 긴급대기반으로써 교체로 輪番케 하는 등의 임시 태세조치를 단행, 그런데 6학년생에 대하여는 각 교 소재 구역 내의 교회를 비롯한 적당한 건물장소를 이용하여 될 수 있는 한 계속 수업토록 지시하였거니와 5학년생 이하라도 원칙적으로 휴교하되 가능한 한도 내에서 교체수업 또는 분산수업을 하도록 요망하고 있다. 그런데 8월 1일부터의 하계방학에 거듭 연달아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하여 그렇게 된다면 동 방학기 동안만 半日 수업이라도 실시하여 뒤떨어질 학동들의 학력향상에 힘쓸 腹案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44]

전쟁이 본격화되자, 하기방학이 끝나는 기간이 다 되어서도 부산지역을 포함한 경상남도 일대 초·중등학교는 개학을 하지 못하게 된다. 부산시 학무과에서는“경상남도, 초 중등학교의 개학을 연기하도록 지시”[45]하고,“1. 각 학교는 평상시와 다름없

43)「부산시 학무과, 초등학교 하기방학을 실시 」《부산일보》 1950년 7월 14일.
44)「부산시 학무과, 시내 초등학교에 휴교령 」《민주신보》 1950년 7월 11일.
45)「경상남도, 초 중등학교의 개학을 연기하도록 지시」《부산일보》 1950년 8월 19일.

는 근무태세 하에 교재의 연구와 물적 준비에 창의적 노력을 경주하여 일단 개학 시에는 조국 재건교육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미리 명심할 것. 2. 일반 교직원은 소속 지도원으로서 校下의 계몽선전과 銃後의 방위에 더욱 매진할 것."등의 세부 지침을 하달한다. 전시 중 개학 조치는 1950년 10월 9일을 전후하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먼저 실시된다.

> 전쟁의 여파로 일시 중단되었던 도내 전재지구 각 국민교 수업은 지난 9월 하순경부터 재개되었는데 작 30일 현재의 도내 각 시·군 국민교 수업률을 보면 통영, 고성, 하동, 마산, 산청, 사천, 진양 등은 100% 내지 70% 정도의 정상 수업을 하고 있으나 함안, 거창, 함양, 창녕 등은 피난갔던 아동들의 미복귀와 假교사 부족으로 아직 수업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산은 수일 전부터 초등 중등교 3학년 이상에 대해서는 교사 부족으로 정상 수업은 못하나 잠정적 조치로써 시국강연과 계몽선전 방법으로 100%의 수업 아닌 취학을 시키고 있을 뿐더러 격일 혹은 3일제로 학과수업도 하고 있다 한다. 그런데 특히 학부형들이 명심할 것은 중등학교 당국에서는 전전과 같이 정상적 수업을 할 때까지는 당분간 후원회비니 수업료니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징수 않기로 되었다 한다.[46]

초등학교는 겨우 개학을 하여 수업을 재개하였으나, 중등학교에서는 여학교를 제외하고는 수업을 재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은 남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자원해 갔기 때문이다.

> 중단되었던 시내 각 국민교는 지난 10일을 전후로 하여 수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각 중등학교에서는 여학교를 제외한 남자고급교 학생 등교등록을 개시하고 있을 뿐 아직 수업개시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46)「경상남도 지역의 초등학교 수업 재개 상황」《부산일보》1950년 10월 31일.

각 학교의 실정은 교사 부족으로 결원, 교사 보충에 머리를 앓고 있는 형편이며 남자고급학생은 거의 펜을 총칼로 바꾸어 전선에 출동한 관계로 각 교에서 학급편성에 곤란을 느끼고 있다 한다. 한편 학교당국에서 금월 초순 이래 학도 등교 준비 조치를 강구하고 재교 학도 등록을 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성적은 매우 부진한 바 있으며 학교당국 예측한 학도 인원보다 놀라울 정도로 적은 숫자의 등록을 보이고 있다 한다. 위의 원인은 동급 학도의 많은 軍門 지원이 있어 후방 잔여 소수 학도는 군문 미참가에 대한 자책 속에서 심각한 번민에 빠지고 있으며 또한 등교한 이후에도 경우에 따라 군문에 지원치 않으면 안될 것을 예측하여 진퇴를 결정치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학도들은 말하고 있다. 더욱이 종전부터 학비조달이 여의치 못한 고학생의 대부분이 환경급변으로 학비 염출에 부득이 등교 단념하여 직업 전선에 전출한 바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이의 사실로써 시내 남자고급중등학교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학교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후 건설의 인재배양의 중대성이 고취되고 있는 이때 많은 학도의 학교 이탈은 이 땅 교육계의 앞날에 커다란 암영을 던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이에 대한 강력한 시책 강구를 요망하는 소리가 높다.[47]

피난 학교는 그동안 휴교 중이었다가 1951년 2월 10일부터 "일제히 개학하게 되었"[48]으며,"피난 남하하여온 공사립 초중등학교 학생은 자유지구 내 해당 정도의 학교에 취학되도록 지시"[49]하여 전시 중에도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50] 또한 부족한 교원은 남하 교원 재교육을 통해 보충하였는

47)「부산시내 중등학교의 수업 재개 지연」《부산일보》1950년 10월 27일.
48)「부산시 초중등학교, 일제히 개학」《동아일보》1951년 2월 10일.
49)「문교부, 피난학생 학교 등록 공고 」《부산일보》1951년 2월 11일.
50)「서울시 국민학교장회의, 중학교 진학시험 일정 등을 결정」《민주신보》1951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 각 국민교장회의는 15일 하오 2시부터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열렸는데 중요 안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를 보았다. 1. 중등교 진학 희망의 在釜 피난아동 입시는 문교부 방침대로 이번만은 부산시내에서 시

데,“제1차로 거제도에서 82명의 수강생이 있었고 이번에 제2차로 昨 12일부터 부산시내 도청 무덕전에서 약 300명의 수강생에게 강의를 시작하였다.”[51] 피난 학교 당시 부산 피난학교의 실태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 고달픈 피난살이에서도 우리나라 장차의 주인공인 청소년학도들은 학구의 정열을 잃지 않고 있다. 기다리던 환도도 이번 해가 가기 전에는 기대하기 어려움을 알자 임시수도 부산에 모인 서울의 각 피난학교들은 겨울날 준비를 급작스럽게 하여 대학으로부터 국민학교에 이르기까지 해변 또는 산비탈 등에 터를 잡아 천막 또는 판자로 가교사를 짓고 남쪽이라 겨울답지 않은 따뜻한 날씨에 혜택을 받아가며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끝 부산에 모여 간판을 내걸고 있는 서울의 피난학교의 실태는 어떠한가? 11월말 현재의 문교부 집계의 통계에 의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대학 사변 전 남한 전체의 남녀 대학생 수는 약 3만 4,000명 가량이었는데, 현재 부산의 각 대학에 등록하여 수업중인 학생 수는 원주대학인 동아대학·수산대학·부산대학을 포함하여 남자 6,515명, 여자 1,655명이다. 종전에는 전시연합대학에 원주학생은 물론 피난대학생을 모아 수업하였으나, 지난 9일 새 학기부터는 원주 3대학을 비롯하여 서울서 피난하여온 연대·이대·동국대·숙명대·중앙대·성균관대 등등(고대는 대구)이 가교사를 마련하여 제각기 간판을 내걸고 수업하고 있고, 세의대·서울여자의대·국민대·국학대·신흥대·고려대 일부만이 국립서울대학의 각 단과대학에 편입되어 연합수강하고 있다. 이를 서울의 피난대학에 등록된 학생(원주 3대학 제외)은 남자 4,763명, 여자 1,592명이고 이를 각 대학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단독개강 ▵서울대학원 남 57 ▵의대예과 남 128, 여 10 ▵수의대 남 106, 여 2 ▵미술대 남 37, 여 10 ▵공과대

행하되 지원교의 등록은 환도 후에 서울시내 중등교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현재 서울시내에 잔류한 아동에 대하여는 환도 후에 문교부의 국가시험에 응하게 하여 진학의 길을 열어 줄 것.”

51)「문교부장관, 당면 교육 문제에 대해 언급」《부산일보》1951년 4월 14일.

남 314, 여 6 ▵법과대 남 316, 여 13 ▵사범대 남 287, 여 186 ▵상과대 남 285, 여 4 ▵치과대 남 66, 여 5 ▵약학대 남 103, 여 □8 ▵의과대 남 264, 여 3 ▵한국신학 남 186, 여 53 ▵성신대 남 41 ▵연희대 남 494, 여 37 ▵정치대 남 165, 여 3 ▵단국대 남 149, 여 ▵한양공대 남 240, 여 3 ▵홍익대 남 455 ▵동국대 남 599, 여 3 ▵중앙대 남 158, 여 8 ▵이화대 여 780 ▵숙명대 여 198 ▵성균관대 남 84, 여 3 ▵부산수산대 남 340 ▵부산동아대 남 698, 여 37 ▵부산대 남 774, 여 26(서울대학연합대학) ▵국학대 남 48, 여 5 ▵신흥대 미상 ▵서울여의대 여 173 ▵세의대 남 45 ▵국민대 남 36, 여 6.[52]

부산에 자리 잡은 피난중학은 거의 전부가 서울서 내려온 학교이고 춘천만이 한 곳 끼어 있다. 이 피난중학 총수는 49개교이며, 생도 숫자 1만 4,729명이다. 교사는 634명이며 학급 총수가 275학급이며 천막과 판자를 마련한 학급이 165이고 기타는 남의 건물이나 주택을 이용하고 있다. 이 49개교 중에는 두 학교 또는 세 학교가 모여 학급을 편성한 곳도 몇 곳 있어 신제 중학 3년제와 고교 3년의 구별을 두지 않고 옛날 구제 6년제 간판 밑에 모여 있으며, 내용적으로만 중학과 고등학교와는 구별을 두고 있다. 각 중학의 학생 수와 학급 수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학급 편성 수). ▹중학 ▵경동중 146(6) ▵서울사범 165(6) ▵상명여 200(6) ▵경기중 966(12) ▵경기상 300(6) ▵경신·대광중 405(6) ▵춘천종합중 165(6) ▵한양공중 287(6) ▵창덕여중 246(6) ▵서울중 736(8) ▵용산중 1,172(14) ▵진명여중 263(6) ▵풍문여중 207(6) ▵수도여중 533(9) ▵무학여중 476(6) ▵휘문중 250(6) ▵여상중앙여중 244(6) ▵성신여중 200(5) ▵숙명여중 357(6) ▵보성중앙중 375(6) ▵선린상 312(6) ▵경복중 606(11) ▵성동중 339(6) ▵경기여중 877(11) ▵서울·성동·경기 각 공중 460(8) ▵배재중 251(6) ▵양정중 202(6) ▵숭문·한성중 214(6) ▵중동·대동상·조선전기 210(6) ▵한영중 162(6) ▵경성전기 178(11) 이화여중 786(11) ▵배화여중 279(6) ▵동덕중 392(6) ▵동명여중 372(6) ▵덕성여중 185(6) ▵정신여중 137(6)

52)「부산 피난학교 실태 (1)」《자유신문》 1951년 12월 16일.

▵신광여중 83(6) ▵성대부중 152(6) ▵동성·계성 299(6) ▹국민교 국민학교 학생만은 서울 잔류 아동보다 적어 부산 시내 24개교에 2만 1,630명이 등록되어 있다. 이 24개교는 피난국민학교로 따로 간판을 붙이고 수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주 국민학교에 서울 피난 아동만을 수용하여 학급을 편성하였으며 모두가 대학·중학과 같이 지내는 것이다. 선생 수효는 279명으로 학급 수와 똑같은데 피난학교 학급만은 서울서 온 선생이 맡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53]

피난 중학교는 총 49개교이며, 학생은 1만 4,729명, 교사는 634명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초등학교는 24개교, 학생 2만 1,630명, 교사 267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처럼 부산지역은 임시 수도의 위상을 갖추고, 전시 상황 속에서도 초등, 중등, 고등(대학)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것은 국어교육 활동에서도 다르지 않았는데, 용지난으로 인한 교과서 출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검인정 국어 교과서의 출판이 부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54] 구체적으로는 이희승 편, 『읽기 쓰기 첫걸음』의 발행자를“首英社 金孝敬”에서“부산시 서대신동 2가 315 弘志社 朱在中”[55]으로 이동하여 출간을 지속시키는 것이 그 예가 된다. 또한 이 시기에

53)「부산 피난학교 실태 (2)」《자유신문》1951년 12월 17일.

54)「용지난으로 교과서 출판에 어려움」《민주신보》1951년 5월 4일. “교과서 용지는 8·15 이후 국내산으로서의 자급자족은 전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더구나 전란 중의 심각한 현하 용지 사정 아래에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서 위정 당국의 교과서 용지 수입에 대한 시급한 조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편수국장 崔鉉培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육 일선에서 교재난으로 곤란을 맞고 있는 이 때 용지 관계로 교과서 발행이 지연되는 것은 유감천만이다. ~으로 용지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 안되면 교과서 정책은 막히고 만다. 교과서의 염가화로써 학부형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점에서도 용지의 직수입이 절대로 필요하다.”

55)「문교부 공고 제14호 검인정교과용 도서 발행자 이동상 황 공고에 관한 일」《관보》1952년 1월 12일.

는 한글학회 등이 부산에 지부를 두고 『우리말 큰 사전』 등의 출판을 기획하는 등 국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하고 실천하여 나갔다.[56]

> 오늘은 505번째의 한글날이다. 우리가 이 한글날을 기념하는 뜻은 무엇인가? 첫째 한글이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글자의 한 가지임을 밝게 인식할 기회를 삼음이요. 둘째 온 국민으로 하여금 우리 겨레의 보배인 한글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심정을 돈우게 하고자 함이요. 셋째 한글을 만들어 주신 세종대왕의 거룩한 덕을 칭송하고자 함이요. 넷째 한글이 우리 겨레의 문화의 터전, 민주의 근본 내지 생활의 무기임을 깨치게 하여 ~으로 한글만으로써 우리 겨레의 문자생활의 전면을 덮고자 함이요. 다섯째 한글의 공효를 더욱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혹은 풀어쓰기 또는 가로쓰기와 한글의 기계화를 촉진시키고자 함이요. 여섯째 우리 겨레의 문화창조의 역량을 살펴 깨치어 이 ~으로 더욱더욱 그 물려받은 창조적 소질을 발휘시키어 신속한 문화재건,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다.[57]

---

56) 「우리말 큰 사전, 용지 부족과 인쇄 문제로 중단 상태」 《부산일보》 1951년 9월 21일. "한글학회 40여 년의 꾸준한 연구와 종시일관한 투지 결정으로 이루어진 우리말 큰 사전의 대사업을 미국 록펠러재단과 을유문화사의 절대적인 협조를 얻어 3권까지 출판을 보고, 나머지 권(4, 5, 6)은 이번 동란으로 인해 출판이 거의 정돈상태에 빠지게 된 바 이는 우리말 사전에까지 커다란 암영을 던지고 있는 딱한 현상에 있다. (…중략…) 6·25동란으로 해서 편찬위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산집했던 용지는 모두 소실과 도난으로 없어졌다. 그 후 제2차 수도 후퇴와 더불어 동 사업은 글자 그대로 전면 난항에 빠지게 되었다. 在 1, 2, 3권 편찬물을 확보하고 나머지 4, 5권의 편찬물을 서울, 천안에 안전히 보관하고 있으며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위원은 정인승(광주), 최현배(부산), 정태진(부산), 최창식(부산), 류청한(천안), 김원상(부산), 이강래(부산), 권승욱(김제) 제씨하고 이중화씨는 납치당하였다. 이처럼 물적 인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동 위원회는 이제 절반 남은 사전사업은 인쇄문제와 동 문제를 해결한다면 부활의 서광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출판계에 부하된 커다란 당면문제임에 틀림없다."

57) 「崔鉉培, '한글'은 겨레 갱생의 근본 길」 《부산일보》 1951년 10월 9일.

이처럼 한국전쟁기 부산지역은 국어교육과 한글 보급, 한글 문화 운동의 역할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었다.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도 다르지 않았는데, 이 시기 부산지역 학교의 실제적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해 공식적 교육과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했던 시기의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각 학교의 실제적 교육과정(학적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다행히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국어과 교육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일부 남아 있어서 이를 통해 당시의 교육 내용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점을 재구해 볼 수 있다.

<table>
<tr><td>연도</td><td colspan="5">1951년</td><td colspan="5">1952년</td></tr>
<tr><td>학년 \ 학과</td><td colspan="4">필수과목</td><td>선택과목</td><td colspan="4">필수과목</td><td>선택과목</td></tr>
<tr><td>1학년</td><td colspan="4">국어(단위점 30)</td><td></td><td colspan="4">국어(단위점 40)</td><td></td></tr>
<tr><td>2학년</td><td colspan="4">국어(단위점 30)
강독 | 작문 | 문법 | 한문</td><td></td><td colspan="4">국어(단위점 40)</td><td>국어
(개설)</td></tr>
<tr><td>3학년</td><td colspan="4">국어(단위점 40)</td><td></td><td colspan="4">국어
강독 (단위점 50) | 작문 (개설) | 문법 (개설) | 한문 (개설)</td><td></td></tr>
</table>

표 2 경남여자고등학교 학적부(요약 자료)

경남여자고등학교의 학적부를 통해 1951년과 1952년의 국어과 교육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다.[58] <표 2>는 1951년에서 1952년까지의 학적부를 요약한 내용이다. <표 2>에서 보듯이 1951년에

58) 경남여고 육십년사 편찬위원회, 2001, 『경남여고 육십년사』 부산, 부산일보 출판국, 136쪽. 경남여자고등학교에 한국전쟁기의 교육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측된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전쟁기 부산지역의 중등학교는 여학교를 제외하고는 수업을 재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은 남학생들의 학도병 지원 때문이다. 따라서 여학교를 제외하고는 수업을 재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으며, 자료 보존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는 1학년과 3학년의 필수과목으로 국어 한 과목만을 개설하고 있으며, 2학년에는 국어를 과목군(群) 형식으로 통합한 다음, 그 하위 과목으로'강독','작문','문법','한문'을 배치하고 있다. 교육과정 상으로는 작문, 문법, 한문 등은 선택과목으로 배치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학교 현장의 운영 원리에 따라 필수 과목으로 통합된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 교육과정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1951년과 같은 전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1952년에도 1951년과 큰 차이가 없다. 2학년 선택과목에 국어 과목이 배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개설하지 않았고 학적부에도 단위점으로 비율이 반영되지 않았다. 3학년에 통합교과의 하위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과목(강독, 작문, 문법, 한문) 중에서는 강독만이 높은 단위점 비율을 가지고 개설되었으며, 작문, 문법, 한문 등은 실제로 개설되지 않았다.[59]

이처럼 정부 수립 이후, 공식적 교육과정이 제대로 실시되기도 전에 전쟁의 참화에 휩싸이게 되어 각 지역의 교육이 무력화되던 시기에도 부산지역의 국어교육은 더욱 체계적으로 전개되며, 국어교육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것은 부산지역이 해방 직후부터 국어교육 및 한글보급운동을 착실하게 전개해왔기 때문이며, 또 부산지역이 임시수도의 위상을 굳건히 하며 한국전쟁기의 국어교육과 한글보급, 한글문화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단순히 지역사 혹은 지역교육사의 내용을 복원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한

59) 이 시기의 실제적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박형준·민병욱, 2007,「1950년대 문학교육의 지형학」『문학교육학』제24호, 한국문학교육학회.

국사, 한국교육사, 국어교육사의 역사적 내용을 풍요롭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Ⅲ. 해방 후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국어교육의 역할과 위상

부산지역은 근대화 이후 항구 도시로 표상되는 공간 개념을 형성하였고, 이것은 식민지 수탈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이처럼 부산은 어느 지역보다 식민지 정책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으면서, 또 역설적으로 어느 지역보다 반식민주의적 저항 노선을 강하게 표현한 곳이기도 하다.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기 사이에 부산지역의 국어교육이 활기를 띠고, 역동적으로 실시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해방이 되고 교육계에 부여된 가장 큰 과제는 우리의 말과 글을 되찾는 것이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었으며, 부산지역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방 후 한국전쟁기 부산지역의 국어교육은 학교와 공장, 기관 단체 할 것이 없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는데, 그 전개 양상과 역할, 그리고 그 위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교육, 혹은 사회교육의 차원에서 실시한 문맹 퇴치 운동. 즉, 이것은 국문보급운동과 괘를 같이 하는 것이다. 우리말 깨치기에 대한 열기가 공장의 문맹자들을 계몽한 셈이다. 그러나 성인교육 차원에서 일부 실시하던 한글강습회만으로는 부산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가던 지역민의 문맹 퇴치 요구를 모두 감당할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 수립을 전후로 하여, 부산지역 각 중학교 야간부가 신설되고, 초등학교 부설 공민학교가 설립되어 제도 내적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부산지역 각 중학교의 야간부 개설과 초등학교 부설 공민학교 설치는 부산지역의 국어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현상이다. 이것은 부산지역 국

어교육의 외연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국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사회학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학교교육의 차원에서 실시한 국어교육. 해방 직후, 부산지역의 각 학교는 한글강습회를 통해 교원 재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미군정 학무국의 임시 조치 사항에 의해 결정된 교과목 시간 배당에 맞게끔 국어 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하고자 하였다. 고전과 국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때인 만큼 고전문학 텍스트에 대한 학습이 강조되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향파 이주홍이 편찬한『신고국문선』이다. 당시 시설과 교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가 직접 교재를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 수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은 부산지역 국어교육의 위상이 어떠했는가 하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한국전쟁기 부산지역은 임시 수도의 위상을 갖추고 전시 상황 속에서도 초등, 중등, 고등(대학)교육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이다. 이것은 국어교육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았는데, 1951년, 1952년에 부산지역의 각 중등학교는 교수요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목 편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국어 수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임시 수도 시기, 한글학회 등이 부산에 거점을 마련하고 국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을 역설하고 실천해 나갔다. 정부 수립 이후, 공식적 교육과정이 제정되기도 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각 지역의 교육이 무력화되던 시기에도 부산지역의 국어교육은 더욱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다.

이처럼 해방 직후 부산지역의 국어교육은 학교, 공장, 기관 단체할 것 없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으며, 학교를 중심으로 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고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 열악한 교육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교재 연구 및 개발, 그리고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하였던 현상을 단위 학교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는 사료적 가치를 넘어, 지역 사랑과 지역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전쟁기에는 부산지역에 한국교육의 거점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한국 국어교육의 책임과 역할이 수행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Ⅳ. 마무리

지금까지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기까지 부산지역 국어교육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국가의 기반을 일구는 것은 지역 사회이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구심체는 학교, 즉 지역의 교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학교와 지역 교육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일에는 소홀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해방 후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국어교육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부산지역 국어교육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해방 후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교육사와 관련된 기초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었고,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지역 교육사를 기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본다. 이 논문은 일반교육학이 아닌 교과교육학의 입장에서 지역교육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또 체계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새롭게 찾은 자료를 해석하고, 역사적 의의를 부여하는 작업이 완결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모두 지역에서 나고,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조그마한 연구가 지

역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병선 외, 2004,「교과서 발행제의 다양화에 따른 자유발행제 도입 방안 연구」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 광주고보·서중·일고동창장학회 편, 2004,『광주고보·서중·일고 팔십년사』광주, 광주편집실.
·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2005,『한국교육의 지역화 연구』서울, 교육과학사.
· 경남여고 육십년사 편찬위원회, 2001,『경남여고 육십년사』부산, 부산일보 출판국
· 대한장학사회, 1958,『교육전시회 화보』대한장학사회.
· 동래고등학교 동창회 편, 2002,『동래고등학교 100년사』동래고등학교 동창회.
· 부산시교육위원회, 1959,『부산교육지』부산시교육위원회,
·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편, 1987,『부산교육사』부산, 반도인쇄사.
· 박붕배, 1997,『국어교육전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박형준·민병욱, 2007,「1950년대 문학교육의 지형학」『문학교육학』제24호, 한국문학교육학회.
· 안동준, 2007,「지역 문학 교육의 실천 방안에 대한 연구」『배달말』제41집, 배달말학회.
· 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7,『문교사 : 1945-1973』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기까지 부산지역 국어교육의 전개 양상을 살피고, 그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의 기반을 일구는 것은 지역 사회이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구심체는 학교, 즉 지역의 교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학교와 지역 교육의 역사를 되돌아 보는 일에는 무관심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해방 후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국어교육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부산지역 국어교육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해방 후 부산지역의 국문보급운동 및 국어교육운동이 학교, 공장 할 것 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부 중등학교에서는 『신고국문선』 등의 국어 교과서를 직접 개발하기도 하여, 해방 후 부산지역 국어교육의 위상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전쟁기에도 부산지역은 국어교육과 한글 보급, 한글 문화 운동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공식적 교육과정이 제대로 실시되기도 전에 전쟁의 참화에 휩싸이게 되어 각 지역의 교육이 무력화되던 시기에도 부산지역의 국어교육은 더욱 체계적으로 전개되며, 한국 국어교육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것은 부산지역이 해방 직후부터 국어교육 및 국문보급운동을 착실하게 전개해왔기 때문이며, 또 부산지역이 임시수도의 위상을 굳건히 하며 한국전쟁기의 국어교육과 한글 보급, 한글 문화 운동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핵심어 : 부산지역, 국어교육, 한글 보급 운동, 국어교육사, 『신고국문선』

【Abstract】

A Phas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Pusan Region during the Korean War after the Liberation

Min, Byung-wook / Park, Hyung-joon

This thesis aims to observe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Pusan region from the Liberation to the Korean War and establish its role and phase. National foundation is made up of regional communities, and the cultural core of regional communities is schools, in other words, regional education. Nevertheless, in the field of understanding and studying regions, to consider regional schools and history of regional education seems to be unconcerned. On the basis of this problem recogni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Pusan region from the Liberation to the Korean War and re-establish the phas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Pusan region.

As a result of study, the fact was ascertained that Hangul diffusion campaigns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were actively conducted in Pusan after the liberation. Especially, in some junior-high schools they developed their own Korean language textbooks, such as "SinGoGookMoonSun", and to some extent, the phas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Pusan after the liberation was estimated. Futhermore, during the Korean War, Korean language education, Hangul diffusion and Hangul-culture campaigns were considerably carried out in Pusan. Before an official curriculum was properly put in effect,

even in the time that Korea was seized with the calamity of war and regional education was incapacitated,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Pusan was unfolded systematically and took up an important position in histor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is was not only because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Hangul diffusion campaigns were conducted steadily in Pusan right after the liberation, but also because Pusan took the stance of the temporary capital firmly and spreaded out Korean language education, Hangul diffusion and Hangul-culture campaigns during the Korean War.

Key words : Pusan reg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Hangul diffusion campaigns, histor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inGoGookMoonSun"